

# 북스

Books

## 재즈의 모든 것

### 이원희 '재즈의 문화사'

재즈 마니아 이원희씨가 재즈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재즈 문화사'를 펴냈다.

'노예의 피', '근접하는 음, 블루노트' '흘러지는 음을 담으려 하다', '재즈는 멈추지 않는다' 등 모두 20개 장으로 구성된 책은 미국에서 태어난 재즈가 세계 예술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살핀 책이다.



책은 재즈나 음악가에 대한 단순한 일화나 친필일화적인 역사를 소개하는 대신 음악 자체와 재즈사(史)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각 장마다 문화적 상상력을 가미, 재즈를 의인화해 재즈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말>글·빛남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吟風弄月' 한시의 풍경과 미학

음풍농월

## 우리 한시를 읽다

### 이종목 지음

"다반사(茶飯事)는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과 같은 일상을 말한다. 옛 사람에게 한시(漢詩)는 다반사였다. 희로애락을 시로 읊었다. 조선의 불락과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쇠락해 버린 한시. 한시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받지만 고려정자가 그려하듯 선조들이 느낀 아름다움이 퇴색되지는 않았다."



서울대 국문과에 재직하며 한시를 연구해온 이종목 교수는 우리 한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 한시를 읽다"는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의 '가을 밤 비 내리는데(추야우중·秋夜雨中)'부터 구한말 매천 황현의 '목숨을 끊으면서(절명시·絶命詩)'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시가 걸어온 길을 짚어보고 중국 한시와 다른 우리 한시의 특징을 찾아 본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한시의 다양한 풍경과 미학을 소개하고 우리 한시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새로움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신라 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한시의 대세는 음풍농월(吟風弄月)이었다. 창작 방법과 미학의 측면에선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시에서도 당풍(唐風)과 송풍(宋風)이 시대에 따라 교체해 왔다.

하지만 18세기 무렵부터 문단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개성에 바탕을 둔 새로움을 추구하고 중국

적인 것이 아닌 조선적인 무엇을 담아야 진정한 시라는 각성이 일어난 것. 이에 따라 조선적인景物과 풍속을 시에 담아내고 우리말 어휘를 시어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정약용은 여기서 더 나아가 '송과에서 시를 주고받으며(송과수작·松坡酬酢)'란 시에서 스스로 조선 시를 쓰셨노라고 선언하기도 했다고 한다.

'시 속의 그림, 그림 속의 시'에서는 이승인, 이인로, 고경명 등의 한시를 들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우리 한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한다.

"그림에 쓴 시는 그림이 말하지 못하는 뜻을 읽게 하고 그림이 담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한다." (본문 139쪽)

'시의 뜻을 호방하게 하는 법'에서는 원유(遊遊)하며 기상을 드높이고, 잠심(潛心)하여 뜻을

## 고운 최치원에서 매천 황현까지 조상들 아름다운 정신 새록새록



깊게 한 옛 시인의 면모를 정몽주의 시를 통해 살펴본다.

"한편으로 산천을 유람하며 스케일이 큰 시를 쓰고, 다른 한편 서재에서 사색하면서 깊이가 있는 시를 써야 큰 시인이 된다." (본문 154쪽)

한시의 아름다움은 그 속에 담긴 소리와 향기, 그림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한시의 아름다운 음향을 따라갈 수 없었던 우리 조상들은 소리의 울림보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개성을 발휘하는 '높은 정신'을 선택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저자는 또 한시를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한시는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아야 하고 귀를 기울여 작은 소리조차 들어야 한다. 냉철한 머리로 따져서 읽어야 하고 뜨거운 가슴을 열고 마음을 함께 하여야 한다. 그래야 한시의 아름다움이 보인다"고 말한다.

이종목 지음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아주 가벼운 것털 하나

### 공지영 지음

소설가 공지영은 왠지 서울 객쟁이같아 보인다. 그래서 소탈함이나 유머 코드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스스로의 표현처럼 '너무 엄숙주의적으로 글을 써 온 데서 벗어났'을 수도 있겠다.

공씨가 이번엔 펴낸 에세이집 '아주 가벼운 것털 하나'는 제목처럼 아주 '가볍다'. 또 유쾌하고 즐겁다. 30여편의 글을 읽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머물고, 어떤 글은 박장대소하게 만든다.

책을 읽다보면 사소한 것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나이 들면서 소중해지는 게 유머라는 그녀의



##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살게 만든다

말에 동감하게 된다.

'작정하고' 쓴 재미있는 문체의 매력 덕이기도 하지만 이 책이 빛을 발하는 건 그녀에게 이런 양질의 소재를 제공하는 주변 사람들의 유쾌하고, 때론 감동적인 삶 덕분이다.

주변에 오래된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를 많이 두고 있다는 작가의 말대로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각각색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쏟아낸다. 또 이 미 소설 '즐거운 나의 집'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던 제재, 동빈이, 그리고 딸 아이의 일상 역시 유쾌한 소재다.

초등학교 4학년 막내 제재가 가을을 하려고 시도한 이야기나 죽을만큼 고통스러웠던 둘째 아이 낳을

때, 이혼하려 법원에 갔을 때 사인해준 이야기 등 재미난 에피소드가 즐비하다.

글을 읽다 보면 그녀는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리산 자라의 낙장불입 시인과 버들치 시인처럼 마음이 아플 때 무작정 기릴 수 있는 오래된 친구들이 많은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글감'이 되기도 하는 걸 보면.

웃을 일 없을 요즘 세상, 이 책을 통해 가슴 따뜻한 유머의 매력에 푹 빠져 보시길, 책 말미 실린 자신이 묻고 답한 '자기 인터뷰'도 독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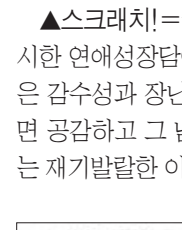
이종목 지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책



▲음악사의 진짜 이야기=음악사화사를 전공한 니시하라 미노루가 바흐부터 존 케이지까지 대가들에 얽힌 에피소드를 통해 음악사를 흥미롭게 설명한다. 로시니가 37살에 '윌리엄 텔'을 끝으로 오페라 창작을 그만둔 이유와 베토벤의 교향곡 5번에 '운명'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야기 등을 만날 수 있다. <열매나무·1만4천800원>



▲스크래치=캐나다 스테판 동코에르의 장편소설로 발칙하고 섹시한 연애성장담이다. 미성숙한 자신에 실망하면서도, 어린 소년 같은 감수성과 장난기는 어쩔 수 없는 여자 나이 서른 살. 남자들이라면 공감하고 그 남자들의 속마음이 궁금했던 여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재기발랄한 이야기이다. <슬·9천500원>



▲대박운을 부르는 신 풍수인테리어=풍수지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풍수지리전문가 박상근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통 풍수이론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 썼다. 또 주거 형태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웅진 리빙하우스·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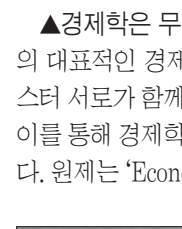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함께 살면서도 사랑을 숨겨야 하는 아픔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해야 하는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을 다룬 소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난 생각을 해'의 시인 원태연의 소설 데뷔작으로 발간과 영화 제작이 동시에 결정될 만큼 매력적인 사랑이야기이다. <도서출판 광·1만3천원>



▲엑트르 씨의 시간여행=프랑스의 정신과 전문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프랑수아 트로르가 쓴 심리 치유 소설. 파리에서 가장 바쁜 정신과 의인 엑트르가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전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여행길에서 그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흘러가는 시간에 대처하는 방법을 듣는다. <랜덤하우스·1만원>



▲죽음의 중지=노벨상 수상자 사라마구의 2005년작. "다음 날, 아무도 죽지 않았다"란 첫 문장이 말해주듯, 죽음이 중지된 미래를 그리는 소설이다. 죽음이 사라진 세상을 환호하는 것도 잠시, 자리가 모자란 양로원, 연금 수급 문제, 종교 기관의 무력화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생기면서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해냄·1만2천500원>



▲경제학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사학자 로버트 하일브로너와 미국 MIT 교수인 레스터 서로가 함께 쓴 책으로 경제학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경제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밝힌다. 원제는 'Economy Explained'. <부키·1만3천원>



▲CEO, 역사에게 묻다=종합컨설팅회사인 달로이트컨설팅코리아의 부사장인 김경준씨가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역사에서 찾은 위기극복 전략과 리더십을 제시한다. 저자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며 위기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위즈덤하우스·1만5천원>

**대인동업부동산**  
☎ (062)223-1140, 5210 ☎ 011-602-2532  
(영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방서건1건)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십시오**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건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직접거래**  
**010-8004-6669**

**고흥 녹동 고속터미널 옆**  
(봉암리조선소 확장지역)  
상가부지 500평~700평  
(당 50만원)  
시세절반 가격

**고흥 특랑도(섬)**  
800평. 평당3만원  
뉴시터, 별장지역으로 최적

**고흥 바닷가 전원주택지**  
(답) 812평  
(현황도로점)  
평당 1만2천원  
금 1천만원

**고흥군 조용함 바닷가 외곽지 전세 2천 노부부 생활비 제공함.**

**금보부동산컨설팅**  
☎ (062)261-8949 ☎ 011-602-2233  
(신수동 543-51(두산아파트입구 인근))

**▶ 판매매매**  
-부구 신수동 35㎡(35평) 내 1437200원 매각 1억 5,000원(보증금 1억 5000원) 보유 1억 5000원  
-부구 신수동 35㎡(35평) 내 1437200원 매각 1억 5,000원(보증금 1억 5000원) 보유 1억 5000원  
-부구 신수동 35㎡(35평) 내 1437200원 매각 1억 5,000원(보증금 1억 5000원) 보유 1억 5000원  
-부구 신수동 35㎡(35평) 내 1437200원 매각 1억 5,000원(보증금 1억 5000원) 보유 1억 5000원

**▶ 건물매매**  
-부구 신수동 대지 285㎡ 내 1791㎡(1791평) 1850000원(보증금 2억 4000만원) 매각 4억 4000만원(보증금 4억 4000만원) 보유 4억 4000만원  
-부구 신수동 대지 285㎡ 내 1791㎡(1791평) 1850000원(보증금 2억 4000만원) 매각 4억 4000만원(보증금 4억 4000만원) 보유 4억 4000만원

**▶ 고시원 및 원룸주택매매**  
-부구 신수동 대지 285㎡ 내 1791㎡(1791평) 1850000원(보증금 2억 4000만원) 매각 4억 4000만원(보증금 4억 4000만원) 보유 4억 4000만원  
-부구 신수동 대지 285㎡ 내 1791㎡(1791평) 1850000원(보증금 2억 4000만원) 매각 4억 4000만원(보증금 4억 4000만원) 보유 4억 4000만원

**▶ 주유소매매**  
-부구 신수동 대지 285㎡ 내 1791㎡(1791평) 1850000원(보증금 2억 4000만원) 매각 4억 4000만원(보증금 4억 4000만원) 보유 4억 4000만원  
-부구 신수동 대지 285㎡ 내 1791㎡(1791평) 1850000원(보증금 2억 4000만원) 매각 4억 4000만원(보증금 4억 4000만원) 보유 4억 4000만원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선컨설팅명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합  
Tel : 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합 수원지구 건설중인 상입용지**

**청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원지구개발지구**  
이주지역  
별의양도인택지  
생태대자연지

**신창지구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생 122평 80평  
건축면적 850평

**주유소**  
650평 35억 600평 16억  
골프연습장 : 120여

**광주지역 녹지**  
주유소부지 890평 930평  
골프연습장부지 2900 2600 4900평  
수원동 4차선지 1200평 1800평  
축구분류동 850평

**전용 가능한 금매물**  
자연녹지 : 3800평·대형차전입가 6차선전  
생산지 : 2800평·평생관리인근 특가상업

**우당언야**  
(연수원 특가시설 골프장 추사 등)  
당양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50만평  
투자대기 수익성이 높은 골프장

**향촌동 260평**  
2층주거지역 근접차분  
투자유망 평당 450만  
환승을 주거지역 2400여평  
골프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 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 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 1300만)  
투자가치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정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 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매매** **찾는 물건**

●부지 최적지 (전원주택, 학교, 공장부지)  
●국가 산단(차진지 인근, 5561㎡ (약 1.682평) 관내지역, 현대 과수 안대미12억 3천만원)

●전시장 정비공장부지 -광송간 도로변  
●신촌동 준주거지역 대지3337평 평당 200만원

●카센터 식당부지 -광송간 도로변  
●송정동, 상업지역 대지 294㎡ (889평) 평당 300만원

●창고 공장부지-벽진동  
●대지 697㎡ (212평) 매대가 2억5천만원

●공장 식당 창고 장례식장 -매월동 준공업지역  
●26미터 도로변 2,780㎡ (92840평) 매대가 23억

●상가부지  
●봉선동, 남구청 인근, 0.8피트 밀집 지역, 2층 일반지역 267평 매대가 8억

●나주 남평 관리지역 -오양원 공장 물류창고  
●현대 농산, 약5,000평, 매대가 상당부, 값질, 분할도 가능함

●상가건물 ●원룸부지 ●모텔매매 ●유흥주점 ●노래방 매대 임대

●고시원매매(매대가 798천만원) ●전대부근, 대충349원, 44실, 월수 900-1천만원

●원룸매매(매대가 12억원) ●금호대(이)양, 원룸30실, 투룸6실, 안양2실, 보종금4억9천만원, 월533만원, 대충4억

●상가건물매매(매대가 11억원) ●상공회(소)양, 지하1층, 지상4층, 대충6억, 보증금1억8천만원 월 750만원

●매대가 16억원 -남구 봉선동 신축건물 680만원, 지상4층, 보종금4억, 월 680만원, 대충6억

●모텔매매-상무지구(매대가 25억) ●지하1층, 지상5층, 객실31실, 대 출11억5천만원, 유흥주점유

●모텔매매-현대(매대가 26억) ●8층건물, 객실25실, 대충10억원, 유흥주점유

**분양 수완지구 월드 메디컬 센터**

**대단지 아파트 및 버스정류장 앞**  
**※ 2009년 3월 10일 준공 ※**

● 1층 : 약국, 금·은·안경, 제과점  
● 2~4층 : 치과,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각 층 200평 분할 가능)

**※ 1층 약국 특별분양 (이비인후과 입점 확정)**

**월드 프라자 분양 사무소**  
☎ 062) 959-1033, 010-7723-1033